

경제

소상공인 75% “마트땀에 못살겠다”

중기청 광주·전남 실태조사... 매출·고객 급감 절반은 月순익 100만원도 못미친 영세 자영업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 10명 중 7명 가량이 매출 및 고객수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형마트 출점을 경영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3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광주 지역은 응답업체의 72.8%가, 전남 지역은 77.5%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77.8%)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으로 '대형마

트 출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남이 5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45.3%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국평균(29.5%)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으며, 광주와 전남이 다른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전남지역은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에도 못미치거나 적자라고 응답하는 등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원 이하가 54.4%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도 47.9%나 됐다. 월평균 순이익도 광주는 1만~100만원 미만은 비율이 전체의 30.1%에 이르렀으며 적자 및 무수입도 19.9%에 달했다. 전남 적자상태이거나 아예 수입이 없거나는 소상공인도 30.9%나 됐으며 1만~100만원 이하도 26.5%나 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창업비용을 살펴보면 광주는 3000만~6000만원 미만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1만~3000만원 미만이 31.1%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1만~3000만원 미만이 35.6%로 가장 많았고 3000만~6000만원 미만도 34.7%나 됐다.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광주지역은 판로(52.5%)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으며, 전남은 '상품 및 고객 관리'

(46.7%)를 꼽았다.

향후 사업체 운영 계획에 있어서도 광주·전남 모두 현재의 사업체 규모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2.2%, 81.0%로 가장 높았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유망창업 활성화, 휴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기청이 지난 5월부터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만69개를 대상으로 제조업, 소매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 실시했으며 광주와 전남에서는 75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을 광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

지난해보다 0.74% ↓... 오피스텔도 0.57% 떨어질듯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올해 광주 상업용 건물의 평균 기준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0.7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기도 0.5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3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2011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2010년 9월1일 기준)' 고시에 앞서 4~23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승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건물의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는 울산이 2.94%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기 2.24%, 대전 1.13%, 인천 0.

89%, 광주 0.74%, 서울 0.60% 각각 떨어졌으나 부산은 1.45%, 대구는 0.17% 상승했다. 광주의 상업용 건물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2007년 7.5% 상승한 후 2008년 2.69%, 2009년 0.95% 등으로 하락해 부동산 불거기를 반영했다.

상업용 건물의 전국 평균 기준시기도 2007년 8.0% 상승한 이후 2008년 0.04%, 2009년 0.26%, 올해 1.14% 등으로 계속해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하락폭이 커졌다.

이와 반대로 올해 오피스텔의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는 서울이 2.81% 상승한 것을 비롯해 부산 2.26%, 경기 1.60%, 인천 0.06% 올랐으나 대구(-0.72%), 울산(-0.67%), 광주(-0.57%), 대전(-0.11%) 등은 떨어졌다. 전국 평균 오

프스텔 기준시가는 지난 2007년에 8.3%, 2008년에 2.96%, 2009년에 3.12%, 올해 2.03% 등으로 계속 상승해왔다.

국세청은 올해 기준시가 고시대상 상업용 건물(44만2318호)과 오피스텔(33만907호)은 총 77만3천225호로 수도권이 64만9천948호, 지방광역시 12만3천277호로 고시대상 중 84.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열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11년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된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기준시가 예정가격 조회화면에 인터넷으로 접속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창업·부동산·금융 재테크 알려줍니다 DJ센터 박람회 개최

2010 창업(신상품·프랜차이즈) 재테크 관련 기업들의 산업전반에 대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투자유치의 장인 '2010 창업·부동산·금융 재테크 박람회'가 다음달 2~4일까지 3일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창업·부동산·금융 등 재테크의 종합적인 정보교류 활성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산층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산업정보의 교류 촉진,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2010 창업·부동산·금융 재테크 박람회 사무국 1599-3398.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전자, 로마 영화제 후원

삼성이 로마에서 열리는 '제5회 로마 국제 영화제'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후원한다. 이번 영화제에서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풀HD 3D LED TV 9000 시리즈 2대를 포함한 LED TV 25대, 노트북 100대를 행사장 곳곳에 설치했다.

/연남뉴스

삼성이 로마에서 열리는 '제5회 로마 국제 영화제'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후원한다. 이번 영화제에서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풀HD 3D LED TV 9000 시리즈 2대를 포함한 LED TV 25대, 노트북 100대를 행사장 곳곳에 설치했다.

/연남뉴스

부동산 공적장부 1장으로 통합

토지·가격·등기부 등 관련 정보 한눈에

복잡다단한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부(公簿,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관공서의 행정 업무도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맞춤형 부동산 종합 정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012년까지 지적, 건축물 관련 11종을 합친 뒤 2013년 이후 토지, 가격, 등기부 등을 더해 총 18종을 통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여러 장의 부동산 공부를 확인하거나 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가 '무방문·실시간' 체계로 바뀌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무원도 연간 579만건의 중복 업무와 8천만건의 중복 정보를 일괄 관리하게 돼 5년(2013~2017년)간의 인력·시간·비용 절감을 편익으로 산정하면 2조24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남뉴스

광주 북구 임동 자동차거리 이벤트 행사 '땀 잡았다, 천원 경매 쇼' 등 다채

광주시 북구는 5일 북구 임동 오거리~신안 사거리 1km 구간에 위치한 자동차거리 특설무대에서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자동차거리 이벤트 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북구와 자동차거리 상인회·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동차거리 등 전문상점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단골손님 칭찬 릴레이·퓨전 국악·댄스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또 행사장에서는 상인회 주관으로 자동차용품 '땀 잡았다, 천원 경매 쇼'가 진행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주)진로 '침이슬' 탄소성적표지 인증

국내 주류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주)진로(대표 윤종용)는 최근 국내 주류부문 최초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으로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앞장서는 제품을 선정, 인증하는 제도다.

진로 '침이슬'은 지난 4월부터 탄소데이터 수집 기간을 거쳐 탄소성적표지 인증 최종심의를 통과했다.

진로는 침이슬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용기사용 및 포장재 최소화, 효율적 물류관리, 친환경 폐기물 처리 등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제조공정을 실천하고 있다.

진로관계자는 "진로가 주류 최초 탄소인증을 받아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실천하는 기업임을 인증받게 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가적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불항 철도운항 중단 말라"

감사원 광주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 '기업애로' 청취

감사원 광주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이하 광주센터)는 3일 영암 대불항 산단을 방문해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동민원센터'를 운영했다.

광주센터 내제방 센터장과 소속 감사관 5명은 이날 오전 대불항산단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 포럼에서 각종 창업과 공장설립 신청, 인·허가 등 기업 불편 또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목표상공회의소 주용순 회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오는 12월12일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대불항 철도 운항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코레일은 적극적인

운항을 바탕으로 타지역과 비교해 운송료를 일정요율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또 "산단기능요원" 폐지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 존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영자협의회도 "고부가가치 품목 제작 등 만들기 위한 연구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암군은 "보존림지에서는 공장 설립이 쉽고 준보존림지에서 더 어렵다"며 이는 법리 해석이 잘못된 것이므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부취재본부=이성희기자 lsh@

▲ 코스피지수 1,935.97 (+17.93)

▲ 코스닥지수 525.89 (+1.96)

▲ 금리 (국고채 3년) 3.43% (+0.02)

▲ 원·달러 환율 1,110.20원 (-3.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성동점(합동점) 02-2276-0597,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회)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시인회관) 03-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0246-5110, 의정부점(보신보타리)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림2001) 03-1469-0110, 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국인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03-2039-4400, 부산 서면점(사면로터미널) 05-1818-8800, 서면점(818-0016) 남포동점(부평구청)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림로터미널)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진주점(구.중앙시장) 05-745-9870, 창원점(한양은행)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05-3426-1511, 남양주점(아래마리)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역) 05-4244-5110, 안동점(구.인동농고네거리)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도동) 05-2225-5110, 광주점(백동광화) 06-265-4477, 전남 순천점(순천사거리) 06-1752-8845, 전북 전주점(신복로터미널) 06-252-5728, 군산점(구.시정) 06-3446-0198, 익산점(백부사당-부거리) 06-3638-5000, 남원점(사당네거리)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동)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터미널)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653-288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백로터미널) 04-3222-1177, 충북 청주점(삼천로터미널) 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산2가) 03-6471-0588, 춘천점(철도호텔)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등포터미널) 06-4753-436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권도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광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1752-8845